

# 靑 “5당 대표 만난 뒤 1대 1 회동하자”

### 대표 회동·상설협의체 ‘5당 원칙’ 재확인...한국당 반응 주목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로 한정하고, 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최종 합의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며 “그런 만큼 작년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로만 진행하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대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졌다”며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5당 대표 회동이 아닌 단독 회동을 하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5당 대표 회동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자는 뜻에서 대

령이 제안했다”며 “이에 야당은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달라 요청했고, 그런 상황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하는 것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도 5당 대표 회동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을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의 단독 회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한국당이 불참하면 다른 형식의 소통 채널을 고민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고 대변인은 “한국당이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고 답했다. 또 ‘5당 대표 회동이 지지부진하면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대답에서 말했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요청했고 그게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다”며 “양 정상이 지지 입장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도 말한 바도 있다.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달창’ 수렁에 빠진 한국당

### 나경원, 대통령 지지자 비하...민주 ‘막말 도 넘어’ 맹비난 홍준표 SNS에 “뜻 모르고 썼어도 문제...보수 품위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비속어 ‘달창’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인권유린·성차별·모욕’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한국당의 막말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지층에조차 모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한국당 장외집회가 선동·혐오표현 경연장, 막말 경쟁장이 되고 있는데 누가 더 혐오표현을 많이 빨리 많이 쓰는지 경쟁하는 듯하다”며 “저는 차마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다. 그 표현은 대단히 인권유린이고 성차별적이고 모욕적,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당의 원내대표, 여성 정치인이 서슴없이 썼다는 데서 놀라울 따름”이라며 “여성을 차별과 역압의 희생물로 생각하는 의식이 식민지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독재 체제 위에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녹아들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달창”은 문 대통령 여성 유권자를 대상화해 맹목적으로 비하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며 “막장 열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제발 선동정치를 하지 말고 민생 국회를 열어 재난으로 고통받는 강원도민, 포항시민을 위한 추경저지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정한 그룹을 비하해서 쓰는 말을 공개적인 대중 집회에서 쓸 수 있느냐”며 “한 당의 지도자가 자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탄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달창이라는 말이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뜻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더욱 큰 문제일 수 있고, 뜻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극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저도 달창의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뒤 알았다. 참으로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라며 “장외투쟁이라는 큰 목표가 달창 시비 하나에 희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文대통령 미니어처 ‘이니 굿츠’ 스노볼 판매 29분만에 완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이니 굿츠’ 스노볼이 13일 판매 개시 29분 만에 완판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미니어처를 넣은 스노볼 두 종류를 한정 판매했다. ‘스노 글로브’ (snow globe)를 뜻하는 스노볼은 투명한 구(球) 안에 액체를 채우고 눈같이 흰 가루를 넣어 흔들면 가운데 놓인 미니어처 위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소품이다.

민주당은 자체 기획을 통해 외부 업체에 의뢰해 문 대통령의 첫 출근 모습을 담은 ‘청와대 버전’ 10cm 스노볼(4만3000원) 1000개와 취임 당시 선서 장면을 재현한 ‘취임식 버전’ 8cm 스노볼(3만원) 2000개를 준비했다. 이 중 ‘청와대 버전’은 판매를 시작한 지 4분 만에 모두 팔렸고, 25분 후에는 ‘취임식 버전’까지 동이 났다.

민주당은 이날 판매 개시 10분 전부터 유튜브 채널 ‘쌈’에서 강훈식·이재정 의원이 흡소평 형식의 방송을 진행하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제 시스템으로 바로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지 않고 구글 문서 제출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 스노볼 준비 물량을 초과했다”며 “내역을 정리해 당원이 아닌 분은 제외하고 주문 시간 순으로 주문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빠른 시간 안에 스노볼이 완판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추가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유성엽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가운데)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호남 지역구 축소 안돼...제3지대 필수 불가결”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취임 일성으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된다”며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유 대표는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의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을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정경발표에서도 “우리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지역구 7석 축소가 불가피한 선거제 처리에 절대 반대한다”며 “잘못된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서 분권형 개헌과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되면 선거제 개혁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제3지대 신당 구상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어서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경발표에서도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는 결코 가서는 안될 길”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면 제3지대 창출을 통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던 평화당은 없다.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거대 양당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 호남 정당을 넘어 전국 정당, 거수 정당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유성엽 의원은 과반 이상을 득표해 황주홍 의원을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양정철 “민주연구원은 총선승리 병참기지”

### 신임 원장 첫 출근...“좋은 정책·인재로 승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신임 원장은 13일 “민주연구원을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로 역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임 김민석 원장의 이임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돌아오는 총선에서 정책과 인재로 승부해야 한다고 본다.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2년 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곧바로 당사에서 짐 싸서 며칠 있자 출국했으니 딱 2년 만에 당에 돌아오는 것”이라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책임도 있어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님과 연구원 운영 방안이나 목표 등에 관해 충분히 의논드렸다”며 “이 대표 구상이나 우리 당 지도부의 구상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지도부를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그는 회의 후 “인터뷰 요청이 많은데 지금은 메시지를 아끼고 일에 전념해야 할 때다. 연구원 업무를 파악하고 일에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이라며 “제가 대선 끝나고 떠나면서 ‘잊혀질 권리’를 애기했는데 말을 많이 하면 조금 그랬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라고 즉답을 피한 양 원장은 부원장 인사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표님과 최고위 회의에서 건의드리고 재가받아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2 7 6 2 1 4 2 0 2  
78 5 point

3 7 6 2 1 4 2 0 2  
72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